

# 세계현대건축의 경향들 ① - 전체적개관

趙 英 武 (건축가)

차례 (1 회)

## 1. 1917년이후의 여러 시기들에 관한 전체적개관

- 1 - 0 편의상의 시기구분
- 1 - 1 20세기초 발효기의 선구자들
- 1 - 2 1917년~1929년 근대건축제 1 기
- 1 - 3 1930년~1939년 근대건축제 2 기
- 1 - 4 1949년~1958년 근대건축제 3 기
- 1 - 5 1958년이후의 Brutalism 과 Formalism

## 1. 1917년이후의 여러 시기들에 관한 전체적개관

### 1 - 0 편의상의 시기구분

편의상 다음과 같이 20세기초부터 현대까지의 시기들을 구분한다 :

- (1) 20세기초 발효기의 선구자들,
- (2) 1917년~1929년 근대건축 제 1 기,
- (3) 1930년~1939년 근대건축 제 2 기,
- (4) 1940년~1958년 근대건축 제 3 기,
- (5) 1958년이후의 Brutalism 과 Formalism.

근대건축은 유럽건축사의 고전주의를 전통으로 계승하였던 유럽국가들과 미국에서 1900년전후부터 발효하여 편의상 1917년부터 1958년까지 존재하였던 건축활동들을 가리키며, 이 근대건축은 점차 세계도처에 보급되었다. 현대의 세계건축은 이 근대건축을 전통으로 한 건축전개이다.

근대건축을 발전시킨 건축가들은 국제양식(International Style)의 제 1 세대 및 제 2 세대에 속하는 건축가들과 유기건축(organic architecture)의 건축가들이었으며, 그 대표적개혁자들은 다음과 같다 :

- (1) 유기건축 : Frank Lloyd Wright (1869).
- (2) 국제양식건축의 제 1 세대 건축가들 :

Le Corbusier (1887),  
Ludwig Mies van der Rohe (1886),  
Walter Gropius (1883).

(3) 유기건축의 건축가들 :

Hugo Härig,  
Hans Scharrow,  
Richard Neutra.

(4) 국제양식건축의 제 2 세대 건축가들 :

Alvar Aalto (1898),  
Oscar Niemeyer (1909),  
Marcel Breuer,  
Arno Jacobson,  
Egon Eiermann.

이러한 근대건축의 시기들과 경향들의 구분은 건축작품들의 외부적관찰을 총정리하고, 외관과 내용 간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도 한 목표에 이르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구분의 유효성은 근대건축 현상을 대단히 광범위하게 또 가능한 한 모순없이 논하는데 이용되고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될 뿐이다.

### 1 - 1 20세기초 발효기의 선구자들

새로운 양식적표현의 탄생은 그 독창적인 새로움들(Originalités)이 수없이 많고 또 이질적인 복합적 발생과정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19세기, 그 전반기는 고전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또 그 후반기에는 특히 과거의 몇가지 건축양식 외관들과 일치하는 건축설계방향을 취하였던 19세기는 이미 새로운 건축의 발효들을 가지고 있었다 「Chicago school / 시카코파」와 같은, 이 발효들은 어떤 근대건축경향들을 발효하였던 개인적시도들이 있었던 것과는 전연 관계가 없었다. 그런데 이 개인적시도들도 분명한 발전없이 고립되었던 확동인 채로 내맡겨져 있었다. 「Jugendstil / young style」과 「Art nouveau / New art」는 전환현상들 즉 새것의 선구자들이었으나, 새것을 대표하지 못하였다. 새로운 空間概念이 「근대(modern)」라고 일컫는 것의 본질적인 특징임이 확실하다면, 아마 이런 경우에는 1893년~1909년 사이에 만들어졌던 미국의 Frank Lloyd Wright의 작품(예 : Gale 주택, 1909)이 근대건축의 최초의 징조(signe)가 될 것이다.

그 보다 약간 늦은 1910년, Adolf Loos 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Steiner 주택」을 완성하였는데, 이 주택은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들로 되돌아간 건축이었고, Adolf Loos 는 이주택건축에서 모든 장식을 포기하였다.

Auguste Perret 는 1903년 프랑스 파리 프랑크린가의 아파트건축과 1905년 파리 폰티유가의 차고건축을 완성하면서 건축분야에 처음으로 철근콘크리트를 도입하였다. Tony Garnier 는 1901~1904년 그 자신이 연구한 근대도시계획의 기본원리들을 「공업도시(La Ville industrielle)」계획에 도입하였다.

이태리에서는, 「Futurism / 미래파」가 1909년~1914년 그들의 개혁적인 주제들을 발표하였고 또 Antonio Sant' Elia 는 그의 미래도시상을 나타낸 많은 스케치들을 내놓았다.

독일에서는, 「werkbund / 공예연맹」이 1909년부터 그 활동을 시작하였다. Peter Behrens 는 1909년 베르린에 AEG 터빈공장을 완성하였고 또 Walter Gropius 는 1911년~1913년 알펠드에 Fagus 공장을 완성하였다.

1900년대말에 접어들수록 긴박한 복고의 촉매들이 많아졌다. 그렇지만 어떤 역행들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독일 코로뉴에서 「공예연맹」의 1914년 전시회를 개최하였을 때, 앞서 논한 1900년대의 최초의 선구적작품들과 공예연맹의 프로그램을 비교하여 보면, 전통적설계들과 타협하기 위하여 1910년대의 선구적작품들의 근대적해결들이 포기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이 1914년 공예연맹 전시회에 출품되었던 작품들의 경향이 Bruno Taut 의 「유리집, 1914」과 같은 몇개밖에 안되는 예외적인 작품들의 경향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런 경향이 단순화된 「Néo-classicism / 신고전주의」라고 불리운다. 그 당시의 이와 같은 발전은 Peter Behrens 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는 「Jugendstil」로써 특징지워지는 것이 등장한 다음에 먼저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들과 산업디자인의 형태들의 순수 을 좋아하였으나, 그 다음에는 신고전주의 방향으로 바뀌었으며, 그리고 이런 그 당시의 변모는 그 자신의 독특한 작품(쾨이스부르크독일대사관, 1911~1912) 뿐 아니라 역시 공업생산설계들 에서도 똑같았다.

비단 그 뿐만이 아니라 또 Otto Wagner 의 제자였으며 「Jugendstil」의 대표적건축가들중의 한사람이었던 Le Viennors Joseph-Marie Olbrich 도 1908년 코로뉴에 신고전주의적형태들로서 「Feinhal 주택」을 완성 하였다.

Adolf Loos 에서도 역시 합리주의에도 불구하고 신고전주의의 경향을 그 당시 가지고 있었다. Peter Behrens 도 역시 이런 영향을받았었다. 그러므로 합리주의가 발효하던 시기속의 이 복고운동이 중앙유럽국가들에서 새로이 발생하는 많은 독창적인 새로움들에 대하여 온전한 전통주의방향으로 유도하였던 것이 바로 1910년쯤이었던 것 같다.

## 1 - 2 1917년~1929년 근대건축 제 1 기

근대건축 제 1 기의 도약대가 되었던 이 모든 선구적인 징조들은 외부적영향때문에 여지없이 유린당했다. 세계 1 차대전이 이러한 징조들의 발전을 중단시켰고 또 세계 1 차대전의 종전은 유럽국가들에게 대전이전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정치적, 사회적, 및 문화적 분위기를 초래하였다. 전쟁때문에 그 기반마저 상실하여버린 사회와 의타 협은 상상할 수 없었다. 이처럼 급진적인 양상들이 정착 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세계 1 차대전의 종말을 가르키는 이 시기로 부터 구조화된 운동으로써 이 근대건축을 논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한다면, 이런 소신은 동일한 경향을 가지고 있었던 건축가들의 그룹에 근거하므로써 점진적인 보급운동을 입증할 수 있는 국가들, 즉 네델란드와 독일에다가 첫번째 자리를 내어 주지않을 수 없게된다. 그들은 그들의 활동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많은 모임들을 결성하였다 :

(1) 네델란드에서는, 「stijlbewegung」 「wendingen」 잡지그룹, 및 「De q en Opbouw」속에서,

(2) 독일에서는, 「November gruppe」, 「Arbeitsrat für kunst」, 「Gläserne kette」, 및 「Ring」속에 집결되어 있었다.

로시아에서는, 「constructivistes / 구성주의자들」 그룹도 역시 대단히 적극적이었다. 마지막으로 근대건축이 국제적운동이 되었다는 것을 뚜렷이 지지하는 새로운 단체 「CIAM / 국제근대건축회의」가 창설된 것은 1928년이였다.

근대건축을 논한다는 사실은 일련의 운동이 이를 지지하는 수많은 건축가들의 수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역시 미래상들, 목적들, 방법론들, 기술들 및 미학적이론들의 유사성의 발전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시기의 근대건축을 논하는 것이다. 1927년 독일 스투트가르에서 많은 국들의 한 수많은 건축가들이 초대되었던 「weissenhot」를가 주제로 「werkbund」1927년전사회는 그 형태들에 관한 표현의 동일성에 의하여 역작들의 공통화된 기준을 보여주었다. 그 건축가들이 대단히 많은 국가들에서 왔을뿐 아니라 그들이 그 당시 대단히 다양하였던 조건들속에서 일하였던 것이기때문에 이 사건은 무엇보다도 아주 주목할 만하였다.

그런데 언제 처음으로 새로운 사실이 많은 건축가들과 예술가들의 宣言형식으로 발표되었는가를 묻는다면, 1917년이라고 대답해야 할 것이다. 「1917년 6월 16일」, 공통된 사고를 발표하기 위하여 모인 한 그룹의 결의를 재제하려고 한 「stijl」잡지 창간호가 간행되었다. 이 「stijl grupe」는 한편으로 그 미학적사고로서, 또 한편으로 Frank Lloyd Wright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던 그 공간개념으로써 1920년대의 근대건축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또 1917년은 Jacobus Johannes Pieter Oud가 「scheveningen 고층건물」의 정면벽을 대상(帶狀) 창들로 완성하기 위하여, 그 건축양식이 전통양식들과 대단히 밀접되어있었던 Hendrik Partius Berlagers의 영향을 벗어나려고 선택한 해였다.

Ludwing Mies van der Rohe가 아직 1919년에 신고전주의적주택을 추구하였고 또 Le Corbusier가 1916년 「Chaux-de-Fonds 별장」설계에서 아직 절충주의적 영향에 애착을 느끼고 있을 때, 이와 같이 Oud는 유럽에서는 전통적건축에서 벗어난 그 세대의 선구자들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

Oud, Mies van der Rohe, 및 Le Corbusier와 같은 이름들은 1920년대에 알려진 중요한 건축가들의 이름들이다. 여기에다가 Theo van Doesburg, Johannes Duiken, Walter Gropius, Hüge Häring, Ernst May, Erich Mendelsohn, Gerrit Thomas Rietveld, Bruno Taut 및 Leendert Cornelis van der Vlugh의 이름들을 더하면, 근대건축 제 1기의 가장중요한 이름들을 인용한 셈이다. 이 모든 건축가들이 동일세대에 속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바로 19세기말 즉 1886년~1890년사이 에 태어난 세대이다. 그러나 F. L. Wright는 이들보다 먼저 1869년에 미국에서 태어났다.

「1917년」이 근대건축과 그 제 1기의 등장을 점지한다면, 1929/1930년은 그 제 1기의 퇴장과 근대건축제 2기로의 이행을 점지한다. 1917년~1929년 간의 13년간에 발생하였던 것은 아주 대조적인 전반기와 후반기의 두가지 단계들로서 요약할 수 있다. 제 1기의 전반기는 건축

설계안들속에 분명한 방향전환의 노선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유토피아적/공상주의적인 설계안들을 탄생시켰다. 건축이 구체성에 접근한다면, 건축은 사회적, 형태적, 및 공학기술적인 관점에 의하여 특징지워진다. 건축은 주관적이고 표현적인 행위를 보여주고 또, 객관적건축법들에 좌우될 때, 건축은 형식적인 강조방향을 시도하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동요의 시기, 발효과잉 기간이다. 그 실현된 것들은 그 수가 드물고 또 이런 시기의 걸작품들은 연구스케치들속에나 존재한다.

1923/1924년에 나타난 변화는 우선 현실성과의 관계와 관련된다. 유토피아적건축들은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현실적 지상과제들을 정복하기 위한 시도들과 대체되고 만다. 한가지 예를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Bruno Taut의 관심사는 자연의 조화를 더한층 선양하도록 운명지워졌던 유리 와 강철로서 창조되는 「알프스건축」이란 미래상이었으나, 그는 이것을 더이상 발전시키지 못하고 「검소한 생활을 위한 최소한주택」이란 지상과제쪽으로 또 도시건축쪽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현실적인 강조는 좀 더 친밀한 형태들로 대체되고 또 객관성이 과잉과 대체한다. 그만큼 근대건축 제 1기 전반기에 관한 연구들과 건축들에 관한 공통분모를 찾아 내기가 어려웠다는 것과, 그만큼 제 1기 후반단계에는 형태들과 재료들의 단일화, 통일화되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을 정도이다. 백색으로 거칠게 칠한, 창들을 대상형식으로 강조한 평행육면체가 근대건축 제 1기의 상징이 되었다.

근대건축 제 1기 전반기의 표현들이 다양하였던 것에 비하여, 이전반기의 표현들의 다양성은 제 1기 후반단계와는 관계가 없다고 여겨진다. 이에 대해서는 그 전반기는 후반단계의 새싹들을 배태하였다고 비교하여야 한다. 또한 이 동요하던 전반기의 단지 극소충격들만이 즉각적으로 개발되었고, 그남아지 충격들은 현대에서 목격하듯이 더늦게야 개발되었으므로, 우리는 이 근대건축 제 1기와 새로운 관계들을 정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 1 - 3 1930년~1939년 근대건축제 2기

변화들이 1930년에 나타났다. 이 변화들은 「근대」의 본질적인 방법론들과 관계되었고 또 미학적문제들을 발전시켰다. 이 변화들은 용적들(volumes), 형태들(forms), 재료들, 건축형식들 간의 관계들과 또 외계환경속에 건축물들을 일체화시키는 조화를 다루었다. 「International style」란 정의가 1920년대 후반기의 건축물들에 적합한 새로운 건축양식의 정의이라면, 지금 여기에는 상징적인 지역주의(regionalism)의 경향을 가진 분명한 분류화와 특징화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런 발전은 물론 근대건축이 1930년이후 유럽국가들에 두루 보급되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촉진되었다. 1920년대에는 근대건축은 한 편으로 네델란드와 독일, 또 한편으로 프랑스의 Le Corbusier가 추구하는 것으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에는 근대건축은 핀란드, 스웨덴, 노웨이, 영국,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 이태리, 스페인, 브라질,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까지 보급되었다.

기후적, 지형적, 및 전통주의적 조건들이 근대건축의 지역주의적인 분류화를 촉진시켰다. 물론 1920년대에 근대건축을 건설하였던 국가들에서도 이런 분류화가 벌써 존재하였었다는 것을 특기하여야겠다. 다른 어법으로 표현한다면, 근대건축이 제 1기에서 제 2기로 이행한 것은 자연적 또는 비자연적인 외부조건들에 의하여 촉진되었던 내재적인 발전으로 말미암은 결과이었다. 이런 확증에 의하여 역사적 신화를 거론하고 또 초연한 힘들을 거역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시기들에서도 개인적 작품이 완전히 한 시대를 반영하였던 몇 건축가들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부분적으로 「지역주의」와 일치하는 형태들이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경향 말고도, 근대건축 제 2기의 다른 특징들로서 1920년대에 발전하였던 방법론들, 연구들, 및 형태들의 계속화와 분류화를 발견할 수 있다.

몇 젊은 건축가들의 작품에서는 이 두가지 관계들이 서로 대단히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왜냐하면 1930년대의 젊은 건축가들에게는 1920년대의 색다른 막대한 유산이 그들이 등장할 때부터 독창적인 개념으로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실례가 Alvar Aalto의 경우이다.

그런데 Alvar Aalto (1898)는 1886년~1890년에 태어났던 건축가들의 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건축가들의 세대의 선구자이다. 일반적으로 Alvar Aalto, Johannes H. van der Broeck (1898) 이외에도, 1902년~1904년 사이에 태어났던 건축가들 즉 Marcel Breuer, Lusio Costa, Arne Jacobson, Egon Eiermann, Alfred Roth, Junzo Sakakura, 및 Giuseppe Terragni, 그리고 Kunio Mayekawa (1905)와 Oscar Niemeyer (1907)가 제 2 세대의 건축가들이다.

국산재료들을 사용하므로써 발생하는 지역주의적 강조화는 시대착오적인 건축형태들의 재개발을 유도하는 위험을 저질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위험은 재료로 말미암아 구조를 개척하는 용구(用具)와 건구에 의하여서도 확대되었다. 어쨌든 현저한 지역주의적 강조화는 국가주의 (nationalism) 경향의 양식이 되어 버렸고 또 표현분야의 어떤 광적인 연구는 잘못 해석한 「Gemütlichkeit」의 방향으로 유도하였다.

이 지역주의적 강조화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얼마나 이런 경향에 확대되었고 또 보급되었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region)」과 「적당주의」의 관념들이

국가적 사회주의 건축분야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관념들은 어느 경우에도 종족건축과 국가주의 건축으로 변질되었는데, 거기에서는 지역주의가 생기넘치는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배타 또는 거부 요소가 되었다.

1930년쯤에 그 등장을 점지할 수 있는 근대건축 제 2기는 세계 2 차대전이 개전함과 더불어 최소한 유럽국가들에서는 끝이 났다. 어떠한 정상적 건축활동도 생각할 여지가 없어지고, 모든 힘들은 전쟁에 동원되었다.

재건운동들은 예를 들면 근대주의가 어느 기간동안 「facism」에 의하여 묵인되었던 이태리에서와 같이 세계 2 차대전 이전에 벌써 징조를 보였다. 그러나 이 전쟁에 가담하지 않았던 브라질 밖에는 그 발전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 1940년대초에 Oscar Niemeyer는 팜플라에 몇가지 중요한 건축작품들(예 : 무용관, 1942. 샌프란시스코교회 1942-1943)을 완성하였다.

## 1 - 4 1949년~1958년 근대건축제 3 기

### 1 - 4 - 1 전반적특성

세계 2 차대전이 끝난 직후의 몇년간은 변화와 준비의 해들이었다. 물론 유럽국가들에서는 전쟁피해들을 복구하고 또 수백만인의 피난민들에게 보금자리들을 마련해주는 것이 큰 문제였다. 1946년에, 고층아파트를 설계할 책임이 Le Corbusier에게 주어졌다. 겨우 1952년에야 한채가 완성되었던 이 아파트건축(L'unité d'habitation, 마르세이유, 1948-1952)은 1949년 시카코의 Lake Shore Drive에 완성한 Mies van der Rohe의 건축물들과 더불어 새로운 근대건축 제 3 기라는 시기의 등장을 의미한다.

이 근대건축 제 3 기에는 새로운 근대건축 제 3 세대가 나타난다. 대개 1909~1910년 사이에 태어난 건축가들이 문제되는데, 이들은 분명히 1902년~1905년 사이에 태어났던 바로 직전의 선배들과 구별된다. 이 새로운 제 3 세대의 일부의 건축가들이 Gordon Bunschaff (1909), Eduardo Affoso Reidy (1909), Ernest Rogers (1909), 이 세대에서는 핵심적지위를 차지하는 Eero Saarinen (1910) Aarne Ervi (1910), Mathew Nowicki (1910), 그리고 Kenzo Tanke (1913)와 Jacob B. Bakema (1914)이다.

실제로 1949년이후에 볼 수 있는 조류는 1930년 무렵에 나타났던 경향의 연장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독특한 차이를 갖었는데, 1930년 무렵에는 새로운 형태들은 몇가지 한정된 「부분들」에만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형태들은 지역주의적 전통의 병합, 신식건축들과 자연적환경 간의 관계들에 제약되어 있었다.

그와 달리 새로운 형식적표현은 전체적(total)이었다.

새로운 형식적표현은 공식화된 전통성 또는 기준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새로운 형식적표현은 용도와 사용재료들에 가장 적합한 특수형태를 추구하였다. 그런데 근대건축에는 본래의 종속적인 구속들이 이미 포기되었으므로, 어떠한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필요하다고 판정된 신식연구가 신식에 전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였다. 모든 다른 가능성들이 고갈된 이후에, 표현수단들의 보급이 형태들을 새로운 절충주의 (Ecclecticism) 방향으로 독차지하였다. 약70년 이전부터 탄생하기 시작한 근대건축이 정확히 시기적으로 19세기의 결실이 없을 절충주의와 대결하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흥미있는 현상이라고 아니할수 없다. 모든 가능성들을 모조리 써버린 다음에, 이와같이 기본적인 현대경향은 대단히 다양해지고 또 달리 평가할수 있는 결과들을 탄생시켰다.

이용관계가 확립되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그 당시까지의 근대건축을 성취할줄 알았던 방법론들과 과거경험에 근거하여 결실이 많은 발전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형태가 그 건축적요소들과 분리되어 있는 곳에서는, 완전히 모든 영향들로부터 자유스러워진 새로운 형태들의 연구가 아카데미한 경화중 방향이라든가, 단순한 절충주의 형식적설계들의 방향으로 유도하였다.

이 시대는 면들(surfaces)의 구조적인 생기(animation)에 의한 취향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데, 이 취향은 기능적인 독창적인 새로움(originalité)이거나, 순수하게 장식적인 독창적인 새로움일 수 있다. 새로운 형태들의 연구는 면질들(textures)의 매력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이 현상은 관찰자가 중요하다고 유의하고 논할 의무가 있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구조적생기가 응용인만큼 비판적자세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조적생기는, 건축물들에 관한 필요들에 의하여 그 동기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귀납적으로 다른 근원들(originalités)과 원인들(causes)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의 외부현상의 판정에 지나지 않도록 적용되어야 한다.

인간의 시사성(actualité)에 접근할수록 현대건축경향들을 공정하게 관찰하는 어려움이 커지는데, 왜냐하면 판단과오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이며, 설계를 계획한 바로 그 시기야말로 그 본질을 파악하는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온갖 용의주도한 심중성에도 불구하고 전환들, 즉 1950년대가 퇴장하였다고 여겨지고 또 1960년대의 등장을 시사하는 전환들이 있었던 때가 바로 1958년이었고 단언할 수 있다.

#### 1 - 4 - 2 1949년~1958년의「기술적완성 (Perfection technique)」

1949년~1958년에 걸친 근대건축 제3기를 고찰한다면 또 그 제3기때 발전한 경향들과 그것들의 과거의 경향들

과의 관계들을 분석한다면, 기술적인 완성과 정확성을 미학적목표의 방향으로 유도하였던 본질적이고 주류적인 새로운 조류를 확신하게 된다. 이런 경향은 Mies van der Rohe로부터 그의 많은 주요요소들을 차용하였다. 이런 경향의 최초의 가장 중요한 건축물들중의 하나가 Skidmore, Owing, 및 Merrill 이 설계한 뉴욕의 「Lever Brother Co 사옥(1951~1952)」고층건물이다. 그 주위에는 국가적반항을 불러 일으킨 수많은 경향들이 존재하였다. 그 경향들에서는,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유산이 다시 되살아나 있다. 간혹 요행이도 이 경향들은 과거의 형태들을 변형시켰지만 중요한 개혁화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향들을 소홀히 평가해버릴 수 없는데, 왜냐하면 분명히 근대건축을 온세계 도처에 유행시킨 것이 바로 이 경향들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이 경향들은 용도와 기능에 관한 교조를 내동이치고, 지형과 경관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많은 이용자들을 위하여서는 건축과의 새로운 관계를 공식화하였다. 유럽국가들에서 젊은 건축가들의 세대에 의하여 설계된 작품들이 이 경향에 속하고 있다:

(1) Alvar Aalto 이후의 핀란드의 젊은 건축가들이 완성한 작품들:

Keijo Petäjä 와 Viljo Revell 헬싱키의「관청과 호텔(1962)」

Kaija & Haikj Siren 「Otaniemi 대학교식당(1952)」

(2) 스위스건축에서 완성된 대부분의 건축물들:

Ernst Gisel 「Grenchen 공원의 극장(1954)」

(3) 독일에서 건설된 건축작품들:

Günthe Wilhal 「Gäneberg 학교 (Stuttgart-Zuffenhausen, 1952~1953)」

그리고 또 수많은 다른 건축물들을 인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인용한 것들은 극소수의 예들에 지나지 않는다.

#### 1 - 5 1958년이후의 Brutalism 와 Formalism

1958년쯤, 어느 사이언가 어떤 건축가들로부터 엿볼수 있었던 변화들이 공공연히 나타났다. 1958년때에는 단순하였기 때문에 쉽게 관찰할 수 있었던 사실들 및 사건들이 급격히 다양하게 변화하였고 또 다양한 종류들로 갈라졌다.

그때까지 근대건축 원리들을 전적으로 신봉하였던 몇 건축가들이 이 근대건축을 지배하는 몇가지 원리들과 방법론들의 유효성을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Philip Johnson 은 1958년에 근대건축이 끝이 났다고 선언하였다. 그렇지만 「기술적완성」의 경향은 그 발전을 지속하였고 또 이 때문에 미국은 그 당시 그 보편적인 확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경향은 근대건축의 새로운 시기를 구

분할 수 있을 만큼 본질적인 특징이 되지 못하였다. 이 경향은 새로운 건축용어인 「Brutalism」이라고 부르는 다른 경향으로 치환되었다. (1949년~1958년의 「기술적 완성」 시기를 현대건축의 제 1 기로 구분한다.)

이 경향의 특징을 가리기 위하여서는, 어떤 오해와 어떤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Alison & Peter Smithson의 이론에 근거한 영국적개념과 「International Brutalism」간의 차이를 식별할 필요가 있는데, 「British Brutalism」 개념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비미학적인데 비하여, 「International Brutalism」의 본질적인 목표물은 미학적 질서(ordre esthétique)이다.

Mies van der Rohe 와 달리, 이 새로운 경향은 완전함과 정교함을 추구하지 않는 대신에 「원료그대로의 면들(surfaces bruts)」과 「독창적인 근원성들(originalités)」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Formalism」이라고 일컫는 경향이 발전하고 있다. 「Formalism」의 관념은 심중히 파악되어야 하는 것인데, 1950년대말과 1960년대초의 건축의 몇가지 경향들의 특징으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Brutalism」이 근대건축이란 전통들의 진화로써 정의되어진다면, 「Formalism」은 최소한 미국의 몇대가들의 경우에는 이 근대건축과의 잠재적인 투쟁인 것이다.

현대건축의 여러가지 조류들의 분석은 형태들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고유한 경향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 경향은 우리시대가 제공하는 온갖 가능성들을 채용하고 있다. 1920년대, 즉 근대건축제 1 기에서는 과거와의 어떠한 유대도 거부하였다. 「Futurism」은 사전에

과거의 모든 미술작품들의 추방을 주장하였다. 의심할 나위없이 건축적개념들의 진화와 수정은 근대건축사조의 강화, 그 고유한 가치의 파악, 및 무엇보다도 적합성들(Conformités)의 발전에 의하여 초래되었었다. 과거가 고유한 의지를 강조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 또 현대의 목표들이 분명히 정의되는 한 절충적인 혼동과 절충적인 모방의 위험은 없을 것이다. 이런 자세는 그 본래의 힘에 대한 커다란 신뢰와 그 본래의 전통들에 대한 완전한 파악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그 당시까지 사용되었던 방법론들과 공법들로 성취된 부동산에 대하여 의심을 제기함으로써 말미암은 결과이었던 역사와의 관계는 어떤 건축가들에게는 새것을 위한 새것에 대한 소망과 모순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절충적인 건축적개념으로 말미암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절충적개념은 과거의 건축양식뿐만아니라 역시 근대적형태들을 상관하고 다루게 된다. 역사적 현상으로서, 「Jugendstil」의 재정착은 필연적으로 「Jugendstil」의 형태들의 재탄생이라고 하는 아주 부정적인 징조들을 야기시킨다. 그러나 1958년이후 이 대단히 형식적인 경향들은 현실적인 관점에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징조들, 또는 형태언어들인 것처럼 고려될 수 있을 것 같다.

1958년이후의 시기에 있어서 「Formalism」 자체속에서 입증되는 기교주의(manierisme)가 현대에 대하여 새로운 건축 개념을 탄생시켰는가에 따르는 의문이 남아 있다. 그렇지만 미술사에서, 16세기의 기교주의의 관용적인 정당한 동기부여가, 어떤 한계속에서는, 1960년대의 징조들, 또는 형태언어들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1977. 12. 10)